



좋은 친구

FRIENDS

2025. 1.
Vol.018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와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8개국 29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1. 차드 후원자 비전트립에서 만난 결연아동들이 후원자가 선물한 티셔츠를 입고 밝은 미소로 인사합니다.



2. 도미니카 행복치과진료소에서 치료를 받고 환히 웃는 아이티 난민과 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남하얀 활동가의 모습입니다.

반년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8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18호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발행일	2025년 1월 31일	이사장 주경훈(오륜교회 담임목사)
발행인	주경훈	이사 고일국(오륜교회 목사)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박명례((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 연구소장)
	금성빌딩 2층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전화	02-483-5007	옥유수(하나웰니스(주) 대표이사)
E-MAIL	friends@hifriends.or.kr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Facebook	hifriends153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Instagram	friends.ngo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2024년 7월 1일~ 12월 31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금내 강성관 강소울 강예원 강연경 강준식 강채울 강하윤 강현호 고수경 권장한 권태정 김경민 김동섭 김민재 김보경 김상은 김선영 김성은 김예지 김 옥 김은영 김중우 김하은 김형구 남광우 문유현 문혜경 박시완 박정인 박찬미 박철규 백창현 손슬기 송효선 안성수 안창엽 여시는 연주희 오상미 유가영 윤영주 윤태진 윤형식 은연희 이강수 이경훈 이기남 이동현 이윤희 이재현 이지현 이진영 이하민 이혜강 임인숙 임하은 장영학 장정원 전오원 정영훈 정지은 조은석 조준상 주광희 진혜미 최성준 최지애 최한결 추희연 한레베카 한재홍 허춘 황경신

단체 광성교회 초등부 런던대파머스어학원 엔필라테스 (주)다림바이오텍 (주)아인헬스케어 (주)알보젠코리아 (주)영풍제약 (주)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진경건설 (주)한화제약 (주)현대약품

“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04 인사말
옥유수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세상을 향해 활짝 웃어봐요!
-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새로 시작된
행복치과진료소
- 08 해외사업 '둘'
Zero to Hero
- 인도네시아 말랑의
직업훈련센터 이야기
- 12 해외사업 '셋'
Toumai Tchad, 차드의 희망 속으로
- 차드 후원자 비전트립 후기
- 20 국내사업 '하나'
아이들의 삶에 일곱색깔
무지개가 떴습니다!
- 프렌즈와 함께 만들어가는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 23 후원자스토리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 김광춘 후원자
- 26 프렌즈 News
2024 프렌즈 하반기

좋은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며 작은 위로의 말로 “참 애썼어”,
“견뎌줘서 고마워”라고 서로 칭찬의 인사를
해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2025년 한해를 맞이한
후원자분들께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축복을 빌어 봅니다.

몇 해 동안 우리 사회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현재는 SNS를 통해 너무 과장되거나 허세로 보여
잊혀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그와
유사한 단어로 ‘아보하’라는 키워드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보하’는
어떤 말의 줄임말일까 궁금하여 찾아보았더니,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되어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프렌즈는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로,

묵묵히 그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후원자,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의 눈물과
땀으로 프렌즈가 만나고 섬기는 모든 이웃들이
‘아보하’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과 평안이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프렌즈가 더 소중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수년 전, 업무 출장으로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안토니’라는 사업가를 만났었습니다.

그 이후 프렌즈의 아동결연사업을 통해

스리랑카에 있는 한 아이를 후원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이름이 ‘안토니’였습니다.

그때는 아주 어렸지만,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장보고서가 올 때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는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안토니를 후원하면서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아들만 둘인 저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고3이 된
지금까지 딸 하나를 키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렌즈와 함께 마음으로 또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라는 것이 어찌면 너무 거창하고,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결국 이렇게 한 아이를 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그 축복이
더 많은 분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프렌즈의 나눔과 섬김은 화려하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웃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활발하고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나보다 남을, 우리의 이웃을
좀 더 섬기고 생각하는 프렌즈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렌즈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분들,

그리고 프렌즈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옥 유 수

세상을 향해 활짝 웃어봐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새로 시작된 행복치과진료소

안녕하세요, 아이티가 아닌 도미니카에서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으로의 철수, 그리고 기다림

전기도 물도 구경하기 힘든 아이티 공화국(이후 아이티)에서 치과라는 곳은 서민들에게 사치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프렌즈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들 덕분에 아이티 오나빌에 ‘희망치과진료소’가 설립되었고, 많은 아이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불안정한 치안으로 인해 이 작은 섬길마저 허락되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아이티를 떠나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이어져 애타는 마음으로 그곳에 다시 갈 수 있는 시기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제안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은 끝이 났지만, 아이티의 치안 공백은 더욱 악화되었고, 다시 아이티로 돌아갈 수 없어 우선 아이티와 가까이에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이후 도미니카)에 머물면서 아이티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 센터에서 임시로 머물며 가족이 지낼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잠시 머물다 가려고 했던 센터에는 신기하게도 팬데믹이 오기 전 그곳을 방문한 치과 의료팀이 사용했던 기기가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저에게 치과 진료를 위한 방을 하나 빌려줄 테니, 아이티 난민들을 위해 진료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곧 아이티로 돌아간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쉽게 치과 진료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



게 알았는지, 센터에 치과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스테프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매일 하나, 둘씩 찾아와 치과 진료를 문의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아픈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마음의 큰 짐으로 다가왔고, 어느 날부터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치과팀에게 기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2022년 1월, 드디어 '행복치과진료소'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처음에는 진료소 광고를 하지 않아, 한두 명씩 환자가 찾아왔고, 치료하는 시간보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이곳의 삶의 모습과 어려움, 서로의 마음의 상처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치료 이상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환자를 진료하며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를 전 강도의 충격으로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던 희망 없는 눈빛과, 아픈 이를 부여잡고 저를 찾아오던 모습이 교차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에 왔구나!'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끈이 되다

어느 날, 진료하는 날도 아닌데, 아이티 사람이 저를 애타게 찾는다고 하여 진료소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한 청년이 휴지를 한 움큼 입에 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이티 난민으로 도미니카에 살며 일을 하러 가는 길에 도미니카 경찰을 만났고, 돈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윗입술이 5cm 정도 찢어져 급히 병원을 가야 했지만, 병원에 가라는 말도 듣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정적이 흐른 후, 그 청년에게 "입술이 조금 빠돌아지게 봉합될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면 내가 해보겠다" 하니 그제서야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갖고 있던 향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주었는데, 청년은 감사하단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진료하는 날도 아닌데, 또 누가 저를 애타게 찾는다고 하여 나가보니, 그 청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눈이 간 곳은 그의 입술이었는데, 봉합이 생각보다 잘 되어있었고, 저를 보자 조금은 익살스런 웃음을 띠며, 이번에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실밥을 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실밥을 풀어준 뒤에야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연신 "메시 봉제, 메시 봉제(하나님 감사합니다!)"하면서, 신이 난 발걸음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청년이었다니!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치료받으러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있던 청년이, 작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0도 이상의 기온에 80~90%의 습도를 가진 도미니카에서 에어컨도 없이 창고 같은 곳에서 매주 진료하는 것이 때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과 작은 섬김으로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간의 힘듦은 잊게 되고 오히려 감사로 채워집니다.

새로운 행복치과진료소

3년 동안 사용해 온 낡은 이동식 덴탈 유닛(수술 기계)은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해 공기가 새고 물이 뿜어져 나오면,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찢어진 튜브를 교체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수리하면서 진료를 이어갔는데, 때로는 "기계가 고장 나거나, 장갑과 마취제가 떨어지면 진료를 멈추겠습니다!"라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장갑과 마취제가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먹고 살기도 힘든 환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주었고, 그렇게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낡은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프렌즈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행복치과진료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도미니카 현지 치과의사와 좀 더 깊은 교제와 협력진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치과가 없는 산골 지역에 이동 치과 진료를 계획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치과공아카데미를 시작하다

치과 진료를 시작하며 도미니카에서 살고 있는 아이티 난민들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티와 도미니카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매주 만 명씩 추방하겠다는 도미니카 대통령의 선포로 무자비하게 아이티인들을 추방하고 있는 상황입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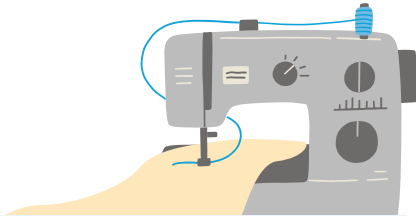
다. 아이티 사람들 안에 돌고 있는 동영상들을 함께 보다 보면, 대중교통을 세우고 한 명, 한 명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온 사람이 잡혀가고, 젓먹이 아기를 도미니카에 두고 추방당하는 어머니의 부르짖음까지... 그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치과를 찾는 가난한 환자 중에는 틀니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이 필요한 아이티 난민들에게는 치기공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고, 틀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틀니를 제공하는 '행복치과공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복치과진료소와 행복치과공아카데미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따뜻한 빛을 비추는 곳이 되길

우리가 아무리 작은 씨앗을 심더라도 그분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이를 통해 변화되는 삶을 보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꾸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따뜻한 빛을 비추는 장소가 되어, 단순히 이를 치료하는 공간을 넘어 사랑과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Zero to Hero

인도네시아 말랑의 직업훈련센터 이야기



인도네시아 자바(Java)섬 동부에 위치한 말랑(Malang). 과거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네덜란드의 영향으로 건물, 도로, 골목 등 도시 곳곳에 유려파인 스타일과 인도네시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룬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패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끄바야¹부터 순백의 드레스까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디자인의 옷들은 이 도시를 닮은 것 같은데요, 이 패션쇼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직업훈련센터의 시작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하루 최대 2,069명 사망, 누적 사망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대규모 실업 및 경제활동 제한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랑 지역의 많은 여성은 가족과 일터뿐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도 잃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렌즈는 KT&G와 협력하여 말랑 지역에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KT&G직업훈련센터(UKCW대학 부설 기관, 이하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¹ 자바족에서 유래한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으로 주로 여성들이 '사롱'이라 부르는 치마와 함께 입음.



봉제 교육 수료생들의 패션쇼 현장

봉제 교육 훈련의 이모저모

봉제 기술 훈련

먼저 훈련생들에게 봉제 기술을 제공하여 직업 기술을 터득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도록 했습니다. 높은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지역사회 내 사설 교육기관과 달리, 취약계층이 교육비 부담 없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훈련생들은 이곳에서 탄탄한 이론 교육과 실용적인 실습 과정을 통해, 상품성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봉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센터가 개소한 첫해부터 약 5.6: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그 후로도 센터의 능력과 효과를 인정받아 40명을 모집하는 기초반에 387명이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99%의 수료율로 많은 훈련생이 수료 후에 취업과 창업 등 배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자녀의 등록금이나 가족 병원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가계의 주요 소득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데에는 봉제 직업훈련 교사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4명의 교사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 여성들이 봉제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헌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밤중에나 주말에도 훈련생의 질문에 성심껏 응답해 주고 개별 지도를 이어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봉제 기술 훈련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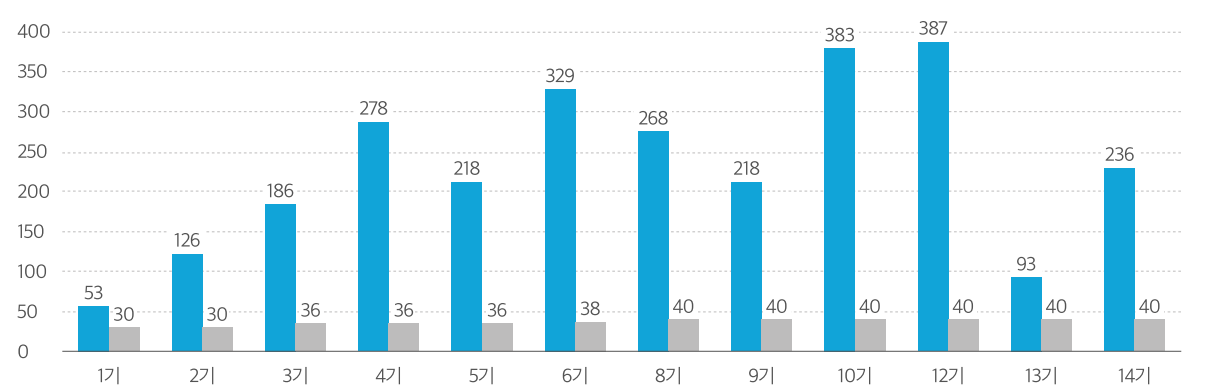
① 기초반(3개월)

바늘 및 천 종류와 활용 방법, 옷 종류별 천 조합 방법, 기초적인 패턴 디자인, 옷감에 따른 재단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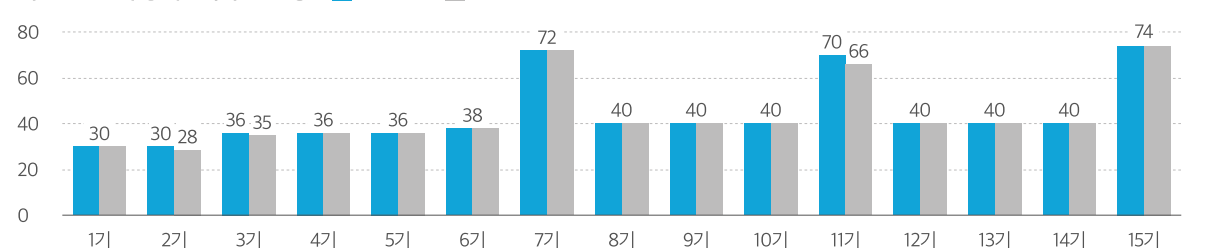
② 중급반(3개월)

다양한 패턴 및 디자인의 활용, 시장성 조사, 파티복, 전통복 등 다양한 의복 만들기과 같은 실습 위주 수업

직업훈련센터 봉제교육 지원 현황



직업훈련센터 봉제교육 수료 현황



저는 47살 마지아이고 자녀가 3명 있어요. 생활비와 특히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지원했어요. 센터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 자세하고 성실하게 알려주세요. 특히 중급반 교육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급반을 통해 다양한 패턴을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전통 의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료 이후에는 작은 가게를 열어서 옷 주문을 받아 제작하고 있어요. 덕분에 첫째 딸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고, 가족들의 생활비도 보태줄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는 정말 많은 여성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많은 훈련생이 센터 교육을 통해 가게수입 증대에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아(3기 수료생)



실습 생산 물품 후원

모든 훈련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센터에서 익힌 기술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센터는 무료 교육의 혜택을 받은 수료생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료생들의 100%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수료생들의 봉제 역량을 더욱 향상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난 팬데믹 시기에는 지역사회 내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정에 총 9만 장의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복 구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640여 벌의 교복을 제작하여 인근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교복 나눔의 현장

안녕하세요, SD Sang Timur 초등학교 교장 디온입니다. 저희 학생 중 50~70%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교복 구입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형이나 언니로부터 물려받아 입는 아이들이 많은데, 종종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해어진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센터 수료생분들을 통해 새 교복을 받게 되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 교복을 입고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새로운 동기도 생기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복을 후원해 주신 한국의 후원자들과 직업훈련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아효능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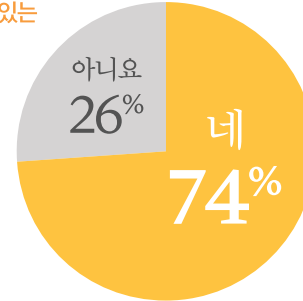
훈련생들에게 봉제기술을 가르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훈련생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성들은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위축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센터는 이들이 봉제 훈련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고, 좌절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기술 습득이라는 배움을 넘어 함께 하는 동료들과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훈련생 총 443명(응답 4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훈련생들의 74%가 이전보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이 올라갔다고 응답했고, ‘훈련 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갔다’는 응답 또한 75%로 조사되어, 센터의 또다른 순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패션쇼로 진행되는 수료식은 훈련과정의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훈련생이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하게 되는데, 훈련생에게도, 가족에게도 매우 자랑스럽고, 특별한 경험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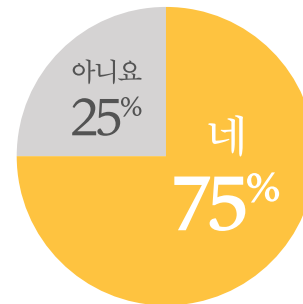
수료 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역량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나요?

총 439명 응답
네 327명 / 아니요 112명



수료 후, 전보다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갔나요?

총 438명 응답
네 327명 / 아니요 1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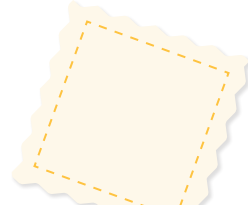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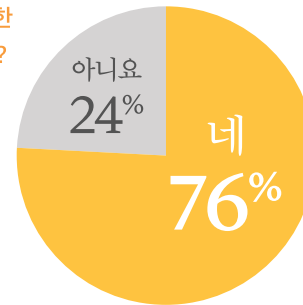
센터를 통한 긍정적 변화

센터에 오기 전, 봉제 경험이 있는 훈련생은 19% 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재봉틀조차 만져본 적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3개월 동안 기초부터 시작해 모든 훈련 과정을 거친 수료생들은 옷을 만들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만든 옷을 상품화하여 판매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생의 76%가 봉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중 311명(93%)은 가정 내 소비를 위해 옷을 제작해 평균 약 110,000 루피아의 경제적 효과를 냈으며, 43%인 144명은 제작한 옷을 고객에게 판매하여 평균 약 470,000 루피아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54명(16%)은 수료 후 봉제 관련 업종에 취직하여 월 평균 2,000,000루피아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수료 후, 봉제 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나요?

총 438명 응답
네 327명 / 아니요 111명



또 다른 희망의 시작, 컴퓨터 기술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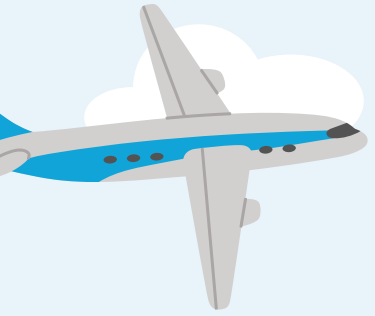
2023년, 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술 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인도네시아 저소득층 청년 및 장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1~5기 훈련생 총 150명이 전원 수료했으며, 2025년 1월에는 6기 훈련생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Brawijaya 공립대의 IT 전공 교수와 조교로 구성된 강사진이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 전수를 목표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중에는 봉제기술교육 과정을 마친 후 추가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훈련생들도 있습니다. 이미 배운 봉제 기술과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 기술까지 갖추게 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훈련생들이 배운 기술을 활용해 말랑 지역 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판촉물 디자인을 무상으로 개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훈련생들을 배출하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Zero to Hero!

“Zero to Hero!” 센터의 훈련생들은 매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을 나서기 전 이 구호를 외칩니다. 가진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Zero)고 생각했던 훈련생들이 센터의 훈련을 통해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쓰러진 이웃을 돕는 히어로(Hero)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도네시아 여성과 청년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인생의 런웨이를 넘어 빛나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세요!

Toumai Tchad, 차드의 희망 속으로

차드 후원자 비전트립 후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 모네는, 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의 심리와 빛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주목하여, 자신이 받은 영감과 인상을 자유롭게 담아낸 화가로 유명합니다. 같은 대상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특히 차드는 미지의 국가,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어둡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던 곳인데, 프렌즈 후원자 비전트립(이하 '비전트립')을 통해서 차드가 어둠 속에서도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준비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간 2025년 1월 7일(화) ~ 18일(토), 11박 12일

장소 프렌즈 차드 사업장(은자메나, 꼴리띠, 벳바나 지역)

현지 책임자 김혜정 활동가 | **인원** 13명

주요 활동

- 마하나임학교 방과후교육 참관, 봉사활동, 운동회
- 결연 아동 가정 방문 및 야외 놀이
- 우물 및 장학금 전달식
- 벳바나학교 준공식 및 봉사활동(놀이 교육, 나무 심기, 사진 촬영)
- 에스뿌아(Espoir, 희망둥이) 1일 캠프

차드를 향한 힘찬 발걸음

2024 프렌즈 데이를 통해 차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에 직접 가고 싶어하는 후원자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서 비전트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8월 비전트립 모집 공고가 나간 후, 동계 시즌에 2주라는 긴 시간과 적잖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명의 후원자께서 비전트립에 신청을 했습니다.

9월 6일, 1박 2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사전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차드의 문화와 역사, 공용어인 프랑스어 기초 회화를 배워가며, 일정 중 갖게 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나눔과 세부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는 남아 있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으나, 어느새 4개월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2025년 1월 7일 새벽 1시 20분, 드디어 차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과 함께, 아이들을 만날 기쁨과 소망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경유지인 이스탄불을 거쳐 거의 31시간을 날아간 끝에 1월 8일 자정, 은자메나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집은 어디에~

어두컴컴한 한밤에 공항 활주로에 내려서 후텁지근하고 낯선 밤공기를 마시던 중, 서울에서 부친 김 30개 가운데 9개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이제야 아프리카, 그중에서도 최빈국 중 하나인 차드에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특히 개인 짐이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혹스러웠으나 모두 건강하게 차드 땅을 밟았고, 이후 일정에 꼭 필요한 물품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때 오지 않았던 짐은 과연 언제 도착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위해 잠시 그 답을 유보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암바타의 겨울

저희가 머물렀던 곳은 수도인 은자메나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암바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현지 활동가들이 사는 센터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필수품을 구매한 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잘 몰랐는데, 한낮이 되어 서서히 기온이 오르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한 때는 차드의 겨울인 시기였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50도를 넘나드는 곳이지만, 건기의 한낮 기온은 평균 35도, 밤에는 15도 내외로 일교차가 크며, 저녁에는 한기까지 느끼셨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차드 날씨를 경험하게 되니 활동가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우물입니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일정은 우물 전달식이었습니다. 우물은 차드 사람들에게 특히 귀한 선물입니다. 센터가 있는 차드 북부는 사하라 사막과 인접한 지역이고, 상하수도나 농업을 위한 관개시설이 거의 없어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4세가 되면 어린 나이에도 벌써 물을 길으러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도 깨끗한 물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물은 생활에 필수 요소입니다. 바로 그 우물을 전달하기 위해 '지식의 사원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우물은 후원자가 현장에서 직접 전달식에 참여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전트립 팀장으로 참여한 서승권 후원자께서 고인이 되신 형님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우물이었는데, 형님이신 고 서승달님은 안타깝게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2024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학교 학생과 교사가 모두 모인 전달식에서 서승권 후원자님은 고인을 대신해 뜻깊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며, 생명의 물이 학교와 지역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흘러가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운동회

마하나임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동회를 했습니다. 학년별 대항으로 2인 3각 달리기, 큰 공 굴리기, 쟁반 위 사탕 먹기, 달리기, 닭싸움, 줄다리기 등 1년에 단 한 번뿐인 전체 운동회를 즐기는 아이들의 상기된 표정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쟁반 위 사탕을 먹고 난 후 하얀 밀가루가 묻은 아이들의 얼굴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게임을 이길 때마다 하늘을 찌를 듯 터져 나오는 뜨거운 함성 소리에 교정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마지막 줄다리기는 비전트립팀과 미취학 아동들과의 시합이 있었는데 결과는 팀의 대참패였습니다. 팀이 처음에 게임에 임할 때는 적당히 힘을 주다 저주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마져 있었는데,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야말로 한방에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한국팀, 그것도 무려 성인팀을 이긴 동생들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사방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와 어린 동생들을 안아주고 손을 흔들어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실력으로 진 것이지만 이 얼마나 다행인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열심히 뛰고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처럼 모든 아이가 미래를 향해 힘껏 땀박질하며 목표하는 바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차드에서 만난 또 하나의 가족

이번 일정의 백미는 후원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이었습다. 차드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들과 다른 팀원들이 삼삼오오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져 총 9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 어떤 아이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노령의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 일찌감치 크고 작은 삶의 다양한 굴곡을 겪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정방문이 이뤄질 때마다 후원자들은 한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특별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팀에는 부부 참가자가 많았는데 결연 아동을 또 하나의 아들, 딸로 여기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부터 자신을 만나러 후원자가 왔다는 사실은 아이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지역 주민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방문객에 조심스러워하던 아이들도 후원자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에 곧 경계심을 풀고 품 안에 들어와 안기며 마음껏 사랑을 받았습다.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가지 더욱 감사했던 것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한 결연 아동의 어머니에게 팀이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가정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방문했던 한 가정에서는 한쪽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부종과 고름이 가득했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침 팀원으로 함께 방문했던 의료진을 통해 긴급 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악화되면 패혈증이 오거나 실명까지 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정에 없던 만남을 통해 치치가 이뤄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차드에서 놀이공원에 간다는 것은~

결연 아동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의 큰 눈이 흥분에 가득 차 있고, 설 새 없이 재잘댕니다. 아마도 수도에서 유일한, 아니 차드에서 유일한 놀이공원에 가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가 차드 근로자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다 보니 부잣집 자녀들만 갈 수 있는 놀이공원이라서 평소에 그런 곳을 간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둘째 치고 놀이공원까지 타고 가는 차도 생전 처음 타보는 아이들이니 어찌 흥분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차량으로 불과 30분 거리이긴 하지만, 차를 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부터 멀미약을 준비해 갔습니다. 몇 년 전, 한 단체에서 차량을 이용해 소풍 갔다가 심한 멀미로 아이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드에서는 한꺼번에 차량 8대를 대여하는 것도 드문 일이라,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놀이기구를 낯설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회전목마를 타고 하늘을 향해 움직이는 관람차를 타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정이 여러모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걱정과 피로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의 기억이 모든 결연 아동의 삶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비전트립을 준비하면서 작은 후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차드 아동을 위한 슬리퍼 후원 캠페인'이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차드에는 날카롭고 긴 가시가 많은데 모래폭풍이 불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맨발의 아이들은 가시에 찢리거나 쇠붙이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해 과상풍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상피병(elephantiasis)과 모래벼룩증(tungiasis)입니다. 상피병은 '코끼리발증후군' 이라고도 불리는데, '필라리아'라는 기생충이 피에 침투하여 코끼리처럼 발이 붓는 병으로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모래벼룩은 1mm밖에 안되는 작은 벼룩으로, 사람의 발을 파고 들어가 피를 빨아 먹으며 기생하는데, 암컷은 2주 동안 수십, 수백 개 알을 낳습니다. 모래벼룩에 감염되면 가려움과 통증이 생기고, 주변 혈관이나 신경에 압박을 주며 2차 세균 감염을 유발하고 방치하면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신발만 신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신발조차 살 수 없는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드 아동들에게 신발을 선물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마하나임학교 학생을 비롯해 고아인 아동들을 위해 총 600개의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도 어느 정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튼튼



한 슬리퍼, 아이들 취향에 맞는 예쁜 슬리퍼로 준비했습니다. 학년별 대표아동에게 직접 슬리퍼를 신겨 주며 후원자들의 사랑을 대신 전했습니다. 아이들도 새 신을 신고 함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차드 현지 활동가들과 한인들을 위해 한식 데이와 힐링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차드에 거주하는 한인이 아이들까지 약 30명 정도인데, 프렌즈팀을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타 단체 단기 봉사단원까지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인이 한꺼번에 모인 것은 2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식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식자재 대부분은 한국에서부터 공수하고, 팀원들의 정성을 담아 손수 한식 뷔페를 준비했습니다. 설 명절이 가까운 시기가 딱국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현지인 스태프들도 함께 자리했는데 한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람인지 차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한식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현지 활동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어로 마음껏 이야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과자를 먹고, 저희들이 준비한 마사지 와 팩 등 힐링 타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축구경기였는데 한인팀 대 현지 청소년팀으로 나누어져 대항전을 펼쳤습니다. 현지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키가 크고 체격도 좋고, 신체적인 조건이 우수해서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인팀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해서 다들 긴장을 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7-6, 한인팀의 승리였습니다. 비록 후반전에 급격한 체력 저하로 인해 역전이 될 위기에 처하긴 했지만, 종료 전까지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축구를 하는 동안, 헬렌 켈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려는 것 역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구는 그저 취미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고단함이나 고난을 잊기 위한, 더 나아가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와 열망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시설이나, 유니폼이나 축구화도 필요 없이 오로지 불 하나만 보고 많은 이들이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 흙먼지가 휘날리는 이 땅에서 맨발로 희망을 찾아 달려가는 아이들의 소망이 함께 흘린 땀방울 속에 보이는 것 같아서 코끝이 찡해오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프렌즈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지에 피어난 꽃, 벳바나학교

일정의 후반부는 벳바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긴 여정을 앞두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준비하고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팀의 일부 인원은 센터에 남아서 에스쁘아(희망이라는 뜻, 고아들을 일컬음)를 위한 프로그램과 결연아동을 위한 가정 방문을 이어가고, 대부분의 인원은 2박 3일간의 벳바나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숙소인 암바타에서 남쪽으로 630km 떨어진 벳바나로 가는 길은 험하고, 안락한 숙소도 없고, 마땅한 식당도 거의 없어 식자재와 조리기구까지 챙겨야 하고, 또 이동에 많은 비용이 들어 방문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벳바나에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벳바나는 다른 종족의 핍박을 피해 이동해 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인데,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곳입니다. 현지 활동가가 다른 지방에 가던 중 우연히 들른 이곳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열기설기 만든 학교는 비바람을 견디기 힘들어서 종종 수업을 중단해야 했고, 교과서도, 책걸상도 없이 흙바닥에 앉아 배우는 학교였지만, 그래도 뭔가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어 2024 프렌즈 데이를 통해 이 소식을 알렸고 많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튼튼한 건물과 책걸상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학교 준공식에 참여하여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전트립팀, 현지 활동가, 단기봉사자 등 총 12명의 인원이

탄 차가 울퉁불퉁하고 구멍도 파여 있는 길을 조심조심, 때로는 기어가듯 중간 경유지인 베베자로 떠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달리면 험하고 굴곡진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 남겨진 차드 사람들의 험하고 굴곡진 인생길을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이들의 역사와 마음을 이해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550km의 긴 여정의 여운은 몸 여기저기에 있는 뻘근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일으켜 최종 목적지인 벳바나로 출발했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제대로 된 길도 없는 숲속을 달려가 보니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4백여 명의 어린이와 200명이 넘는 학부모, 마을 관계자들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환영의 춤과 진심을 담은 감사의 인사들, 함께 자리한 이웃 학교와 마을 지도자들의 응원과 격려까지 오지에 있던 벳바나가 넘치는 관심과 사랑으로 들쭉날쭉해졌습니다.

준공식 후에는 반별로 4D 프레임을 활용한 만들기를 하고, 후원자들이 한땀 한땀 정성껏 만들어준 펠트 필통과 필기구, 영양제,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용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쁜 풍선 아트를 배경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해 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밤샘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 준 분들의 수고를 통해 마을을 떠나기 전 모든 사진을 인화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벳바나에서 암바타로 돌아오는 13시간이 넘는 긴 여정의 중간쯤에는 노천식당이 있고, 주유소가 있습니다. 차가 잠시 주유를 위해 섰을 때, 빈 그릇을 들고 주위에 몰려드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 두 명 모이는 것 같더니, 어느새 수십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급한 대로 차 안에 갖고 있던 바게트를 반씩 잘라서 30여 명에게 줄 수 있는 양을 만들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에게 부탁하고 차 안에서 머물러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반개 짜리 바게트를 받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마침내 받고 나

서는 안심된 얼굴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아기를 안고 앉아 있는 어린 엄마의 모습도, 거리의 생활이 오래되어 보이는 걸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 무더위에 흠뻑 땀을 흘려쓰고 돌아오는 고단한 길이었지만, 길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각인되어 쉽게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암바타에 도착해서도, 또 차드를 떠나 한국에 와 있는 지금에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삶의 희망이 차드에 계속되기를

차드가 익숙해질 무렵,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 현지 활동가들과 함께 평가회를 갖고 일정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드를 떠나 한국에 왔지만, 마음만은 차드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한동안 운영되었던 차드 국정 항공사 이름은 투마이 에어 차드(Toumai Air Tchad)입니다. 투마이는 차드 소수 종족 다자(Daza)인들의 언어로 '삶의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항공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차드 사람들의 삶의 희망(Toumai Tchad)만큼은 꺼지지 않고 계속 빛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나저나 그 많던 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틀 후면 도착하리라 믿었던 우리들의 짐은 이후 무려 세 번에 걸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 도착한 짐은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틀 전에 도착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짐이 도착했을 때, 그 짐이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제때 도착하지 않은 짐은 저희에게 이렇게 생각지 못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일곱색깔 무지개가 떴습니다!

프렌즈와 함께 만들어가는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이야기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프렌즈는 외교부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주력하는 국제 NGO입니다. 그래서인지 프렌즈가 국내에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가워하며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렌즈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시설인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이하 오륜레인보우)'가 2013년 4월에 설립되었고, 지역사회의 많은 사랑과 응원 속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한 결과 2019년 10월에는 강동구청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 중점 및 특화시설인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들은 항상 정기적인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 등급인 A를 놓치지 않고,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는 곳으로, 객관적인 평가로도 그 실력과 역량이 검증된 곳입니다. 이번에는 이 두 곳 중 오륜레인보우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수능에 도전해요

오륜레인보우가 운영을 시작한 지 올해로 만 12년, 처음 시작될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동 세 명이 잘 성장하여 고3이 되었고 이번 겨울, 처음으로 수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소원(가명)이는 그중 한 명입니다. “선생님 저는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 두 곳에 원서를 냈어요.” NGO에서 일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와 간호학과에 지망했다는 소원이는 초등 1년부터 센터를 다니기 시작하여 이제는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 고등 3학년이 되었습니다. 소원이는 심성이 곱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좋은 친구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청소년 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 중학생 때부터 현재까지 외부 기관과 연계한 성적장학금을 받아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할게~! 어느 학과든 소원이에게 잘 맞을 것 같아. 잘 선택했네~”란 말에 “고맙습니다~”라며 밝은 미소를 짓는 소원이의 앞날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며 아이의 삶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줘서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대견하고 흐뭇했습니다.

희망나무축제에 나타난 BTS?

강동구에는 ‘희망나무축제’라고 불리는 축제가 매년 열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재원 중인 아동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즐기고 발표도 합니다. 작년에는 아동 몇 명이 팀을 꾸려, 열심히 연습한 BTS의 다이너마이트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축제 당일 열렬한 박수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동들

은 그 후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이웃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며 마음껏 성공과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예뻐했습니다.

이렇듯 성취감을 느낀 아동들은 올해도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댄스를 했지만, 올해는 합창을 하고 싶어요.”라며 ‘노랑풍선’을 하겠다고 곡명까지 정해서 제안합니다.

작년에도 아이들에게 마음껏 해보라고 응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파트를 나눠서 지원자를 받아 팀을 꾸리더니 합창, 피아노, 기타, 댄스팀 등 각 팀의 리더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며 안무팀을 맡은 리더는 유튜브를 보며 직접 안무를 짜서 연습을 시키고, 합창팀을 맡은 리더는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한 합창 연습을, 피아노팀과 기타팀은 부족한 부분을 반복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어 가르치는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센터 근처 연습실을 빌려 합창과 연주와 댄스를 함께 연습하면서도 학습도 게을리할 수 없는 아이들의 노력이 여름부터 11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희망나무 축제’가 열리고 아이들은 무대에서 자신들이 만들고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음원도 없이 직접 연주하며 자신들이 꾸민 안무와 연습한 합창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자부심으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왔습니다.

센터는 사랑을 싣고

또한,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저금통을 꽉 채워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강동구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모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여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답게 키워주신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아이들의 관계, 심리, 정서 등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은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위, 아래, 동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 훈련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자라니 신뢰감도 한층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평상시보다 더 많은 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고 실직한 상태에서 센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며, 가정경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오히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왔으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게도 아이들도, 가정도, 센터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열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창의로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 아이들이 창의 로봇과 코딩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 특기적성교육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센터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지라 방법을 생각하던 중 그해 연말 구청에서 갑자기 프로그램비를 주겠다고 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매년 기업을 통해 외부 기관 프로그램비가 연계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어 운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사가 나옵니다. 코딩교육도 받아 IT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아이들과 함께 센터에서 지낸 12년은 너무나 값지고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존재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그 이후로도,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센터를 센터답게 만들어준 아이들과 선생님께, 그리고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륜레인보우와 함께 하면서...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중학생 친구들과 영어로 만났습니다. 두 아이를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에 보낸 이용자 학부모 대표이자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중학생 친구들의 영어 공부를 돕게 되었을 때 기본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기초영어와 파닉스부터 해야 하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으나, 먼저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사교육 없이도 읽기와 기본 독해가 어느 정도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문법의 기초와 기본 생활 습관과 성실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도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내가 와준다'라는 느낌으로 센터에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특하면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에 지식을 넣어주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센터 복지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이 아이들을 다독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나 상황들을 듣고 나면 이 아이들을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당근과 채찍을 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로서의 경험은 길지 않지만, 아이들을 많이 키워온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 어떤 부분을 도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 풀이 연습을 하도록 도우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스스로 해야만 하기에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1년쯤 지나면서 매년 빠짐없이 온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다른 것이 나타났고,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성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갈수록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 이용자 학부모 대표로 구청 회의에 참석했는데, 2025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늘봄학교 중심의 방과후 돌봄을 중점사업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돌봄이 잘 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제가 더 깊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해보니, 정말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들, 학교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가정의 아동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남편과 사별한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많고 특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참 많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센터에서 충분히 메워주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의 문화적, 정서적 필요까지 채워주고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만난 청소년들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 다. 한 아동의 삶이 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생각한다면, 지금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합니다

- 김광춘 후원자



후원자님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즈에서 아동 결연 사업에 후원하고 있는 김광춘입니다. 결연을 통해 2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멋진 사위를 만나 결혼한 예쁜 딸과 이제 곧 결혼을 앞둔 듬직한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프렌즈와 함께 1:1 아동결연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프렌즈는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아동 결연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프렌즈를 알게 된 것은 아주 오래되었어요.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프렌즈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프렌즈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10년 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저희 딸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때마침 프렌즈에서 후원 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 때부터 후원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보내준 편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꾸준히 후원을 늘려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결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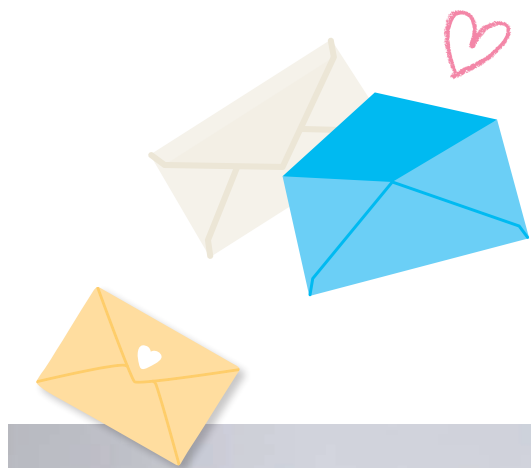
2024 프렌즈데이를 통해 아동 한 명을 더 결연해 주셨어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 아이를 또 품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결연 후원을 시작할 때는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중간에 중지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망설였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절약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절약해서 또 한 아이가 공부할 수 있고,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품게 되었어요.

따님도 프렌즈의 결연후원자이신데,
가족이 함께 아동을 후원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딸이 저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서 4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늘려가고 싶다고 해요. 아이들이 보내준 편지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서로 “내 아이가 컸네”, “아니 내 아이
가 더 자랐네” 하는 행복한 비교를 하며 편지가 올 시간을
기다린답니다~ 아이들 꿈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보게
되는 기쁨도 있어요.



결연뿐 아니라, 프렌즈 봉사단의 숨바팀에서도
오랫동안 의료봉사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봉사라는 것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여하신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돌아보면 그 귀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매번 하나
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3년
동안은 청약통장에 모아둔 것으로 비용을 해결했고, 그다
음부터는 함께 봉사하셨던 의사분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받은 상금으로 비용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7번
숨바 의료봉사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라 긴 휴가
를 내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도 준비해야 하지만, 일단 마
음을 정하고 준비를 시작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재정이 채
워지고 많은 의미와 보람 속에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같은
믿음 안에서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 헌신하고자 시간과 물
질을 기꺼이 내어놓고 섬기는 귀한 분들과 기도가 저의 원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의 나눔과 섬김은 지금도 진행 중입
니다.



2025년에 특별히 프렌즈 후원자 비전트립을 통해
아프리카 차드에 방문하시지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게 되었는데,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네. 차드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너무 먼 나
라라 저와는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우연찮은 기회에 차드
에 먼저 다녀오신 젊은 사진작가의 차드 사진 전시회에 가
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예
배 드리다 잠이 든 어린 아가의 모습 등 인상적인 사진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진에서 본 아이의 모습은 눈망울이
사슴처럼 크고 예쁜데 너무 슬픈 표정이더라고요. 그 표정
이 내내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표정이 저를 차드로 향하
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환갑이었어요. 그래서 비전트립으
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후원자분들과 함께 차드 비전트립을 위해 매주 모이
고 있는데 차드가 불어권이라 불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
데 발음이 잘되지 않아서 팀원들끼리 한바탕 웃곤 한답니
다. 팀장님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어요. 아
마도 다들 불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재밌는 단어
를 연상해서라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황열예방주사를 접종한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네요.



아동결연, 프렌즈봉사단, 후원자 비전트립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프렌즈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프렌즈를 통해 후원하시길 망설이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프렌즈 후원 강추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
오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아
동결연을 계속할 수 있을까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결정하신다면, 그분이 친히 키
우시고 돌보십니다. 공부해야 할 어린 나이에 힘든 노동으
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꿈도 꾸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
들에게 꿈을 주고 건강하게 공부하며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 모두의 사랑 속에 잘 자라서 자신이 속한 사

회와 지구촌의 아름다운 이웃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
록 손을 잡아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
금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프렌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 결연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그 귀한 수고
에 감사드립니다. 프렌즈 가족의 헌신과 사랑으로 프렌즈
의 나눔과 섬김의 지경이 갈수록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프렌즈를 통해 많은 아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웃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여정에 제가 함
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4 프렌즈 하반기 News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재위탁

2019년에 개소한 구립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가 5년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운영되어, 강동구청에서 위탁만료 시점을 앞두고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심사위원들과 대면 심사를 거쳐 재위탁이 확정되는 순간, 모두 함께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운영 기간 5년 중 거의 4년은 팬데믹을 겪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게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어질 5년간의 위탁 운영 기간도 아이들이 따뜻한 돌봄을 받고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4 빵빵런 in 대전 x 도제식빵 1,2차 빵후원

2021년부터 매년 프렌즈와 함께 맛있는 간식 나눔을 해오고 있는 빵빵런에서 '2024 빵빵런 in 대전' 행사 후 도제식빵과 함께 모닝빵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차 배분은 10월 24일에 경기도 지역 미등록 아동, 난민 아동과 이주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 515개를 나눴고, 2차 배분은 11월 19일 강동구 내 지역 아동센터 15곳에 515개를 전달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1,030봉지(모닝빵 8,240개)를 나누었습니다. 당일 생산한 질 좋고 영양가 넘치는 따끈따끈한 빵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주고받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기쁜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나눔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빵빵런과 도제식빵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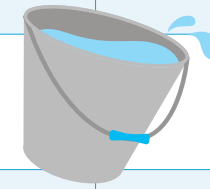
안암제일교회, 인도네시아 숭바에 우물과 학용품 후원

최근 5년 동안 매년 꾸준히 우물을 후원하고 계신 안암제일교회에서 이번에는 우물과 함께 가방과 학용품 세트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곳은 인도네시아 서섬바 깊은 산속에 있는 CAHAYA마을인데요, 이곳 학생 100명에게 후원 물품이 전달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학용품 세트에 신나서 미소 짓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몽클해서 눈물이 났다는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비록 지붕도, 벽도 없는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더 큰 꿈을 품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신 안암제일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사랑에 걸맞은 아름다운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 비영리 민간 기부단체 투명성 교육 참석

11월 25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와 한국모금가협회가 함께하는 비영리 민간 기부단체 투명성 교육'에 경영지원팀 김옥경 과장, 대외협력팀 손모아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3시간에 걸쳐 개정된 기부금품법 모집등록제도와 기부금품을 다루는 회계실무에 대해 다루었고, 참여 기관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프렌즈는 개정되는 제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소리교회 차드 우물 후원

12월 1일, 천호 2동에 위치한 한국소리교회(담임목사 이형영)에서 차드 우물 개발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리교회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노인홈 운영, 노인대학, 무료 급식사업 등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섬김을 활발히 이어가는 곳이며, 소리마을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아동복지사업에도 헌신하는 귀한 교회입니다. 센터 아동들이 차드 어린이들을 위한 빵 급식에 저금통 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온 성도가 참여하여 차드 우물 2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소리교회에 감사드리며 생명의 물을 선물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어린이들을 위한 의약품 기부

한국존슨앤드존슨에서 연말 기부의 일환으로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2,400개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약을 먹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약의 쓴맛을 없애고 체리맛이 추가된 이 약은 생후 4개월부터 먹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 해열진통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은 타이레놀이 많이 필요했던 코로나19 시기에도 다양한 종류의 타이레놀을 기부해 주셔서 현장 활동가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큰 힘이 되어 주신 바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또 한 번 귀한 기부로 함께해주신 한국존슨앤드존슨의 건강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후원자님의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프렌즈에 꼭 알려주세요!



FRIENDS
사단법인프렌즈

www.hifriends.or.kr

